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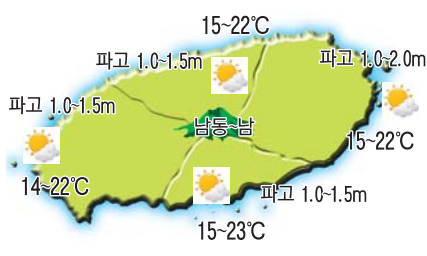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17일 목요일 음 9월 19일 (11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맑고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다. 아침 기온은 14-15°C, 낮 최고 기온은 22-23°C로 예상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30% probability for rain, snow, fog, and dust.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6:40), sunset (20:15), moonrise (09:28), and moonset (19:08).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two days.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Rows show current levels and trends.

월드뉴스

FIFA 회장 “무관중·무중계 경기 실망”

北 축구협회에 문제 제기

중계와 관중 없이 치러진 한국과 북한의 축구 대표팀 경기를 지켜본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평양을 방문한 인판티노 FIFA 회장.

FIFA는 15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북한 인판티노 회장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을 허락하지 않아 생중계도 무산됐고, 남북 대결은 ‘깜깜이·무관중 경기’라는 황당한 상황에서 치러졌다.

북한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북한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을 현장에서 지켜본 인판티노 회장은 경기 후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경기장에서 남북한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FIFA는 전했다.

이 경기는 1990년 10월 남북통일축구 이후 29년 만에 평양에서 펼쳐진 ‘남북 대결’이었다. 당초 북한은 약 4만 명의 관중이 입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지만, 킥오프 때까지 경기장에 들어온 관중은 없었다.

인판티노 회장은 “역사적인 경기인 만큼 관중석이 가득 찰 것으로 기대했는데, 경기장에 팬들이 한명도 없어 실망스러웠다”며, 이어 “이러한 문제들을 북한 축구협회에 제기했으며 축구구가 북한과 세계 다른 나라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

목요일론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원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분명한 것 같다. 강아지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어릴 때 함께 놀아준 주인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광고를 보니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빅데이터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방향의 지향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공유는 필요한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복지의 변화를 보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짚어보고자 한다.

복지 하나로’ 사업이 추진 될 것을 아십니까?

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험 예측 및 발굴 대상 정보를 전문가에게 제공해 직접 방문 후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주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예고하고 있다.

을 방문해 한국의 프라이버시 현황 조사 후, 7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를 비롯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없이 추진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프로젝트 이행 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개인정보 중심설계 및 개인정보 기본설정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빅데이터 환경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제주형 통합 복지 하나로’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서는 제주가 먼저 개인정보 보호 기본체계를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는 혁신과 경제성장의 결실들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경제 분야에 진출할 때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기본’이라는 특별보고관의 권고가 실천되기를 바란다.

넷, 제주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아십니까? 2019년 7월 15일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한국

열린마당

‘금추’의 귀환, 소비자·농가 모두 울상



임규현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금추는 배춧값이 치솟을 때 배추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지난 달부터 가을 태풍이 전국을 덮치면서 배추농사가 큰 피해를 입었고 병까지 번지면서 공급이 급격하게 줄었다.

받는 돈은 최고 386원이라는 이야기다. 배추는 가격 대비 부피가 커서 유통비용이 많이 들고,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이것이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 가격이 높아도 농민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신규 공직자로서의 청렴 다짐



김아진 서귀포시 공보실

시청의 수습직원으로서 발령 받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면접시험 준비를 하면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청렴’이라는 가치에 대해 공부했고,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금액과 상황까지 외우며 준비했던 기억이 난다.

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하니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가 경험한 공직은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며, 작은 금액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아직은 신규 공무원으로서 ‘청렴’을 논하는 것은 어렵다. ‘청렴’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거나 나오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청렴’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민원인이나 동료 직원들에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 작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나서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 등을 항상 가슴에 새긴다면 ‘청렴’이라는 가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heilsa advertisement featuring a man in a suit, a price list for various products, and a map of the store location in Jeju City.

Samcheon Bicycle advertisement featuring a cyclist, various bicycle models, and store information for Jeju.